

‘빅리그 도전’ 장현석, 다저스와 계약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한국 마산 용마고 투수 장현석(19)이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다.



▲ 장현석, 사진=연합뉴스

10일 ‘스포탈코리아’에 따르면 장현석의 매니지먼트사인 리코 스포츠에이전시는 전날 장현석이 다저스와 계약금 9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장현석은 “다저스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저를 선택해주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입단 각오를 밝혔다.

다저스 소식을 주로 다루는 ‘다저스네이션’은 “장현석은 19세의 투수라는 점에서 이 계약은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다. 그는 이미 최고 시속 97마일을 던지며 패스트볼,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스위퍼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한다.”며 장현석에게 주목했다.

또 “장현석은 KBO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이 예상됐지만 미국에서 뛰기 원했고 다저스가 그에게 기회를 줬다.”며 “장현석이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가 미래의 스타로 성장하길 바라는 다저스 구단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다저스는 류현진, 마에다 켄타, 노모 히데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영입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장현석도 LA에서 이들과 비슷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저스 팬들은 장현석이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매우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레이커스, 르브론 동상 세워야 한다”



▲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그는 GOAT(Greatest Of All Time)다. LA 레이커스는 동상을 세워야 한다.”

9일 농구전문매체 ‘점프볼’에 따르면 오스틴 리브스(Austin Rivers)는 이날 스포츠 전문매거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료 제임스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2003-2004시즌 데뷔한 제임스는 20번째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평균 28.9점 8.3리바운드 6.8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변함없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또한 통산 3만 8,652점을 기록하며 이 부문 단독 1위로 올라섰고, 올 시즌에는 NBA 역대 6호 21번째 시즌이라는 진기록도 수립한다.

길버트 아레나는 “제임스는 만 38세에도 여전히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며 나이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깨다.”라며 “나는 제임스가 GOAT라 생각한다. 레이커스는 향후 그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레이커스는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지만, 동상의 영예를 누린 이는 많지 않았다. 선수 가운데에는 제리 웨스트, 엘진 베일러,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 사킵 오넵의 동상이 크립토닷컴 아레나에 있다.

제임스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한 슈퍼스타로 기억될 선수다. 다만, 은퇴 후 레이커스에서 동상이 세워질지는 의문이다. 레이커스에서 보낸 시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2018년 이전, 레이커스에서 5시즌을 치렀다.

올해 US오픈 테니스 대회 총상금 사상 최대

테니스 메이저대회 US오픈 상금 규모가 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테니스협회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US오픈의 총상금을 6,5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대회 총상금 6,000만 달러보다 500만 달러가 인상된 것이다.

우승 상금도 증가했다. 남녀 단식 우승자는 각각 300만 달러를 받는다. 이 역시 지난해 260만 달러보다 약 15% 늘어난 것이다. 단식 1라운드에서 떨어져도 상금으로 8만 1,500달러를 챙길 수 있다. 복식 챔피언은 팀당 지난해 68만 8,000달러에서 1만 2,000달러 오른 70만 달러를 받는다.



▲ USTA 빌리 진 킹 국립 테니스 센터 경기장 전경, 사진=ntc.usta.com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일부 경비를 제외한 올해 US오픈 상금은 올해 열린 그랜드슬램 대회 중 가장 많은 6,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대회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윌빙던은 약 5,650만 달러, 프랑소오픈은 약 5,400만 달러, 호주오픈은 약 5,300만 달러였다고 ESPN은 설명했다.

US오픈은 매년 그랜드슬램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뉴욕 퀸스의 플라싱 메도우스-코로나 파크(Flushing Meadows-Corona Park)에 위치한 USTA 빌리 진 킹 국립 테니스 센터(USTA Billie Jean King National Tennis Center)에서 열린다.



사랑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